

# 제주지역 여성노동의 유형별 비교 연구\*

김 준 표\*\*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방법과 자료의 성격
- IV. 제주 여성의 가사노동
- V. 제주 여성의 양육노동
- VI. 제주 여성의 취업노동
- VII. 결론

## 국문초록

제주여성은 오랜 세월 제주의 상징이었다. 보통 제주를 삼다도라고 부르는데, 이는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제주의 특성으로 제주여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제주여성의 노동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의 노동은 가정에서의 가사노동과 양육노동 그리고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노동으로 구분된다. 2005년과 2016년의 시점에서 제주여성들의 가사노동, 양육노동, 취업노동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비교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분석 결과,

\* 연구의 자료는 2005년과 2016년에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사회조사실습을 통해 이루어진 <제주 여성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이다. 사회조사실습 교과목에 슈퍼바이저 및 공동강의자로 참여시켜준 김석준 교수와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한 수강생들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초심과 재심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듬어준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salira43@jejunu.ac.kr

제주여성의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은 거주공간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취업노동의 고용형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불안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제주여성노동의 변화는 가사/양육노동의 외부화, 취업노동의 불안정화로 이해된다.

주제어: 제주여성, 여성노동, 가사노동, 양육노동, 취업노동

## I. 서론

제주여성은 제주의 바람, 돌과 함께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부르는 상징이었다.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은 섬 제주도, 하지만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 많던 돌이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돌집이 콘크리트 집으로 바뀌고, 밭담은 허물어졌다. 바람도 예전 같지가 않다. 2011년 이후에는 여성과 남성의 성비구성에서도 여성인구의 50% 미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단지 많고 적음으로 제주의 삼다를 이야기할 수 없음이 현재의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제주의 삼다 중 하나로 제주여성을 꼽을 때면, 수의 많고 적음에서 시작하여 제주여성의 억척스러운 노동을 이야기하거나, 이에 서 비롯되었다는 제주여성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곤 하였다. 하지만, 정작 제주여성의 노동 상태가 어떠한지 그 실태를 분석하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제주여성의 노동 실태와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부장제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남성은 가정을 대표하여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을 하였고, 여성은 가정에서 노동력 재생산을 담당하였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의 성별 노동 분업 아래에서, 남성의 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인정되지만, 여성의 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인정되지 않고 당연한 듯 무불노동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노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노

동력 가치를 지니고 있음과 노동력 재생산의 장인 가정에서 남성도 여성과 함께 돌봄 노동인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을 분담해야 함을 피력해 왔다. 성주류화 연구와 정책 등으로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에서 성인 지적 관점이 수용되고, 정책의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성평등을 목표하게 되었지만, 여성노동의 현실은 운동, 학문, 정책의 영역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여성노동의 실태를 가사노동, 양육노동, 취업노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여성의 노동 및 제주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과 자료의 특징을 밝힌다. 자료는 2005년과 2016년에 실시했던 ‘제주 여성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 및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들이다. 4장, 5장, 6장은 조사 결과이다. 가사노동, 양육노동, 취업노동으로 나누어 분석될 것이다. 7장은 결론이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한국사회 여성노동 연구

노동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다. 사회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그 생산물을 신진대사에 투입하여 생명을 지속해나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경제적 생산활동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취업노동과 노동력 재생산을 수행하는 가사 및 양육노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노동연구는 경제적 생산활동에 집중해왔고, 여성 연구는 경제적 가치가 무시되어왔던 가사활동에 집중하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국사회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여성노동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추이

| 연도   | 가사노동       | 양육노동                    | 취업노동           |
|------|------------|-------------------------|----------------|
| 1992 | 김혜연<br>김혜경 |                         |                |
| 1995 |            |                         | 강성의            |
| 1996 |            |                         | 신광영·김현희<br>김혜연 |
| 1997 | 김은희<br>문옥포 |                         |                |
| 1998 | 신경아        |                         |                |
| 2002 |            |                         | 허정옥            |
| 2004 |            | 김혜선                     |                |
| 2005 | 오화영        |                         |                |
| 2006 |            |                         | 김미숙            |
| 2007 |            | 김오남                     |                |
| 2008 | 허수연        | 김유미 외                   |                |
| 2009 |            | 홍승아·이영미<br>김혜선<br>김승권 외 |                |
| 2010 |            | 박충선<br>이미정 외<br>장상천     |                |
| 2011 |            | 김경호·소순창                 |                |
| 2014 |            | 이선영                     |                |
| 2016 |            |                         | 신경아            |

여성노동은 경제활동영역인 취업노동과 경제활동을 위한 노동력 재  
 생산영역인 가사 및 양육노동으로 구분된다. 가사 및 양육노동은 가사  
 노동으로 한데 묶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분리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  
 다. 가내무보수노동으로만 생각하던 가사 및 양육노동이 임금노동의 형  
 태로 이미 분화되어 자본주의 경제활동영역으로 포섭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성노동을 가사노동, 양육노동, 취업노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사노동 및 취

업노동에 대한 연구가 2008년까지 이어져왔고, 2004년 이후 양육노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에 대한 연구는 여성학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취업노동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들이 계층과 관계없이 공동으로 생산을 담당하던 과거의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가 절하된 상황에서 살고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서 출발한다<sup>1)</sup>. 가사노동의 가치를 가시적인 생산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평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 변화가 분석되어야 하고<sup>2)</sup>, 계층별 성역할의 의미와<sup>3)</sup> 주부의 역할이<sup>4)</sup> 비판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은 더 이상 희생적 차원이 아니라 욕구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5)</sup> 선행연구의 문제제기는 1997년 정무장관2실에서 구상한 “가사노동 가치 평가기준과 제도화 방안”<sup>6)</sup>을 견인하였다.

21세기에 이르러,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개별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장되었다. 소비하는 일이 개별가족을 위한 개인적 노동인 듯하지만, 소비의 주담당자인 여성들은 주부님들로 호칭되면서 일상적 구매행위를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권장한 결과이다.<sup>7)</sup> 그

- 
- 1) 김혜연,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에서 본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4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대학교, 1992, 487-502쪽.
  - 2) 김혜경 외,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한국 가족의 역할변화」, 『여성과사회』 제3집, 1992, 278-314쪽.
  - 3) 김은희, 「신중산층의 일·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임돈희 외, 『성, 가족,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접근』, 서울: 집문당, 1997, 235-271쪽.
  - 4) 문옥표, 「도시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 임돈희 외, 위의 책, 1997, 189-234쪽.
  - 5) 신경아, 「희생의 화신에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여성과사회』 제9집, 1998, 159-195쪽.
  - 6) 여성부, 『여성백서』 2002.
  - 7) 오화영,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주부로 살기—후기 자본주의 사회와 가사노

렇다면, 가사노동은 온전히 여성의 노동인가? 비공식적 영역인 가정에서 행해지는 여성의 가사노동은 성차별적이고 무보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에서 가사노동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를 소득수준, 노동시간 등과 비교함으로써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하였을 때, 본인의 노동시간과 배우자의 노동시간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가사노동 사용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남성의 경우에는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태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sup>8)</sup>

양육노동도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는 성차별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양육노동에 관한 연구는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에 비해 많지 않았다. 가사노동 연구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졌다면, 양육노동 연구는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여성장애인과 한 부모 그리고 노년 세대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에 치중되어왔다.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거나 기대되지 않는 무성적이며 비정상적인 존재이며 아내나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부여되지 않은 채 타인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 규정되어왔다. 하지만 여성장애인들 역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며 양육 또한 경험할 수 있다. 양육대상인 동시에 양육주체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 여성장애인 이외에 노인들도 포함된다.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아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되므로, 장애수당제도와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 외에 장애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지원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sup>9)</sup> 손자녀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조손가족의 경우나,<sup>10)</sup> 미혼모

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2호, 2005, 167-195쪽.

- 8) 허수연,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집 3호, 2008, 177-210쪽.
- 9) 홍승아·이영미,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아동기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8권 1호, 2009, 119-158쪽.
- 10) 김혜선,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8집, 2004, 85-117쪽; 김혜선,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 『노인복지연구』 제43집, 2009, 61-92쪽; 김오남,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up>11)</sup>

여성의 취업노동은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의 재평가 요구 이전에 여성운동 초기부터 논의되었던 여성노동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 여성노동에서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을 분리하여 재평가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 노동시장의 여성 취업노동에 대한 연구는 저조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성찰적 연구가 10년을 단위로 이어져 왔다.

1996년 신광영·김현희는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여성과 노동운동을 성찰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이 남성노동자들보다 강도 높은 지속성을 보여주었던 1970년대 여성 노동운동과 달리, 1980년대에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공간적으로 제한된 단위 사업장 내부에 머물면서 지역사회와 결부되지 못하고 기업주의적 노동운동으로 변형되었음이 지적되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노동인력의 잦은 이동이 노동운동의 경험을 내부적으로 축적하지 못하게 했던 것도 한계적 상황인 것으로 보았다.<sup>12)</sup>

2006년 김미숙은 1960년에서 2000년까지 40년의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을 돌아보았다.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 28.0%에서 2000년 48.9%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일관된

『한국노년학연구』 제16집, 2007, 59-84쪽; 김유미·김명희·정여주,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접근」, 『사회복지연구』 제38집, 2008, 123-163쪽; 박충선, 「조손가정의 형성원인과 양육경험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5집 2호, 2010, 105-125쪽; 김경호·소순창,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양육지원요구와 영국 사례를 토대로 한 정책적 개선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집, 2011, 117-142쪽.

11) 김승권·김태환·임성은·고은주,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이미정·김혜영·선보영,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장상천, 『한국의 양육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이선경, 『미혼양육모의 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12) 신광영·김현희, 「여성과 노동운동—7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6, 239-253쪽.

성장세가 아니고 기복이 심한 형태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를 살펴볼 때, 사무직이 0.5%에서 16.4%로 33배, 전문직이 1.5%에서 15.7%로 10.5배 증가하고 생산직과 판매직 그리고 서비스직도 2.4배, 1.7배, 1.6배 증가하였으나, 관리직의 경우 0.8%에서 0.9%로 장기간에 걸쳐 제자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1차산업이 70.5%에서 17.0%로 축소되어 대폭적인 감소가 현저하게 일어났음이 확인되었다.<sup>13)</sup>

2016년 신경아는 여성노동시장의 주요 쟁점으로 8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기업의 남성중심적 내부노동시장 전략과 노동시장의 성별분절구조, 일가족양립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여성 고용 증가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시간제 고용의 여성노동 저임금 불안정 효과, 성별직업분리의 문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조합의 여성 노동조건 개선 기여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의 여성노동 관련 연구에 크게 치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신경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의 여성노동 연구 동향에서 통계분석 등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실증연구, 일가족양립과 여성고용 등에 대한 정책연구, 여성노동자의 고용실태 조사 등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비해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운동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sup>14)</sup>

## 2. 제주사회 여성 연구

제주여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그 양이 적지 않다. 지속적으로 생산되었으나, 주로 문화적 특수성에 관련된 것이었다. 여성의 노동을 직접

13) 김미숙,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 1960~2000」,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2006, 133-156쪽.

14) 신경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 연구』 제16권 1호, 2016, 321-359쪽.



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강성의가 지역개발과 제주지역의 여성 경제활동 변화를,<sup>15)</sup> 김혜연이 여성의 경제활동을,<sup>16)</sup> 허정옥이 제주여성의 경제활동 및 취업구조를<sup>17)</sup> 살핀 정도이다.

강성의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졌던 제주지역의 지역개발과정으로 여성노동력이 축소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60년대 이후 제주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여성의 성비구성이 계속 낮아졌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급격히 저하되었다. 산업별 성별구조 역시, 1차산업 비율이 88.1%였던 1960년에는 1차산업 종사자의 여성 비율이 59.1%로 남성보다 많았으나, 1차산업 비율이 41.7%였던 1990년에는 1차산업 종사자의 여성 비율이 49.3%로 남성보다 낮았다. 불안정한 경제활동의 증가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축소가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적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축소는 결혼과 함께 주어지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책임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 시기 타 지역에서는 기혼여성 노동력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관광산업 관련 업종에서 결혼퇴직이 관행화되었던 것이 이유로 지적되었다.<sup>18)</sup>

허정옥은 강성의가 분석한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시기를 1999년까지 확장하여 제주여성의 경제활동 및 취업구조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전국의 평균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이 더 활발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지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자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적극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추세이고 종사상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고위직 종사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점이 지적되었

15) 강성의, 「제주도 개발과정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의 변화」, 『제주도연구』 제12권, 1995, 115-178쪽.

16) 김혜연, 「여성의 경제활동」, 『제주리뷰』 2호, 1996, 23-31쪽.

17) 허정옥, 「제주도 여성의 경제활동 및 취업구조」, 『제주도연구』 제22권, 2002, 3 19-354쪽.

18) 강성의, 앞의 글, 1995.

다.<sup>19)</sup> 강성익의 연구와 허정옥의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강성익은 축소되었다고 진단한 반면, 허정옥은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제주여성에 대한 수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여성노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별로 없었다. 여성사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고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중심으로 제주 여성의 삶이 일, 가족, 공동체라는 축에서 분석되고 여성·가족 실태가 조사되고 보고되어 일·가정 양립 정책 등 제도권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은<sup>20)</sup>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여성노동을 주제로 하지 않았지만,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에 대한 연구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 수행된 의미 있는 연구작업이다.<sup>21)</sup>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는 작업장 민주주의를 겨냥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상태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성인지 예산과 정책 같은 성주류화 노정은 이에서 비롯된 결과물인 셈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과 활동 이후 일·가정 양립과 성주류화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노동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제주지역에서의 여성연구가 노동보다는 문화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여성의 노동실태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19) 허정옥, 앞의 글, 2002.

20) 권희정·염미경,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 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4.; 강경숙·안미정, 『제주 여성의 삶: 일·가족·공동체, 재해석과 재조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

21) 강경숙·김선필, 『제주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방안—30~40대 기혼 남성의 가사·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7.

### Ⅲ. 연구방법과 자료의 특징

2010년은 제주지역 인구변동에서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많아진 분기점이다. 인구변화는 사회변동의 핵심요인이다. 따라서 2010년을 기준으로 제주사회의 변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사회의 변동 중 하나인 여성노동의 유형별 변화를 201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5년 전과 5년 후의 상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한다. 2005년과 2016년의 설문조사 결과가 주 자료이다. 통계청의 통계자료도 필요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이 연구는 2005년과 201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PSS 22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한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의 사회조사실습을 통해 이루어진 “제주 여성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는 2016년에 추가된 몇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같은 내용의 설문지로 수행되었다. 2005년과 2016년 모두 11월중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제주지역 15세 이상 여성이 모집단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각년도 10월 기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층화집락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95%신뢰도수준에 허용표집오차  $\pm 5\%$ 로 표본의 크기를 정하였고, 부실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선정된 표본은 2005년에 416명, 2016년에 511명이다.

표본의 구성은 <표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독립변인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거주지, 연령대, 학력으로 잡았다. 여성의 노동실태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단독주거여부와 혼인상태도 독립변인에 추가하였다.

2005년 조사에는 전체 416명 중에 2.2%인 9명이 거주지역을 묻는 설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거주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2〉 표본의 구성

N(%)

| 독립 변인   | 범 주       | 2005       | 2016       |
|---------|-----------|------------|------------|
| 거주지     | 전체        | 407(100.0) | 511(100.0) |
|         | 제주시 동지역   | 228(56.0)  | 310(60.7)  |
|         | 제주시 읍면지역  | 70(17.2)   | 66(12.9)   |
|         | 서귀포시 동지역  | 55(13.5)   | 58(11.4)   |
|         | 서귀포시 읍면지역 | 54(13.3)   | 77(15.1)   |
| 연령대     | 전체        | 416(100.0) | 511(100.0) |
|         | 15-34세    | 169(40.6)  | 154(30.1)  |
|         | 35-49세    | 119(28.6)  | 165(32.3)  |
|         | 50-69세    | 86(20.7)   | 133(26.1)  |
|         | 70세 이상    | 42(10.1)   | 59(11.5)   |
| 학력      | 전체        | 415(100.0) | 509(100.0) |
|         | 무학        | 49(11.8)   | 26(5.1)    |
|         | 초등학교      | 33(8.0)    | 36(7.1)    |
|         | 중학교       | 43(10.4)   | 55(10.8)   |
|         | 고등학교      | 126(30.4)  | 171(33.6)  |
|         | 2년제대학     | 84(20.2)   | 86(16.9)   |
|         | 4년제대학     | 77(18.6)   | 125(24.6)  |
|         | 대학원       | 3(0.7)     | 10(2)      |
| 단독주거 여부 | 전체        | 415(100.0) | 503(100.0) |
|         | 혼자 살고있다   | 46(11.1)   | 84(16.7)   |
|         | 함께 생활한다   | 369(88.9)  | 419(83.3)  |
| 혼인상태    | 전체        | 415(100.0) | 508(100.0) |
|         | 미혼/비혼     | 119(28.7)  | 159(31.3)  |
|         | 초혼        | 230(55.4)  | 271(53.3)  |
|         | 재혼        | 6(1.4)     | 12(2.4)    |
|         | 사별/이혼/별거  | 60(14.5)   | 66(12.9)   |

2005년 응답자 406명의 거주지 구성은 제주시 동지역이 56%인 228명, 제주시 읍면지역이 17.2%인 70명, 서귀포시 동지역이 13.5%인 55명,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13.3%인 54명이다. 2016년 응답자 511명 중

60.7%인 310명이 제주시 동지역에서, 12.9%인 66명이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11.4%인 58명이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15.1%인 77명이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표본의 연령대는 5세 구간으로 층화하여 표집하였으나, 최근의 선행 연구들이 15~34세를 청년으로 묶어서 분석하고 있고 그에 동의하기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대를 4개의 급간으로 나누었다. 35세에서 69세까지를 장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2016년에서 해당 급간이 58.4%로 절대 다수가 되기에 5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2005년도의 경우, 15~34세가 169명으로 40.6%이고, 35~49세가 119명인 28.6%, 50~69세가 86명으로 20.7%, 그리고 70세 이상이 42명으로 10.1%이다. 2016년은 15~34세가 154명으로 30.1%이고, 35~49세가 165명으로 32.3%, 50~69세가 133명으로 26.1%, 그리고 70세 이상이 59명으로 11.5%이다.

학력은 2005년에는 1명이, 2016년에는 2명이 응답하지 않았다. 2005년과 2016년 모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30.4%, 33.6%로서 가장 높다. 무학과 초등학교의 비율은 2005년에 비해 2016년에 적은 상태이다.

혼자 살고 있는지 함께 생활하는 식구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단독주거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5년에는 표본의 11.1%인 46명이, 2016년에는 표본의 16.7%인 84명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다. 2005년에 비해 2016년이 5.6%p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는 미혼/비혼이 2005년 119명 28.7%, 2016년 158명 31.1%로 2016년의 표본이 2005년에 비해 2.4%p 크지만, 초혼은 2005년 230명 55.4%, 2016년 271명 53.3%로 2016년의 표본이 2005년에 비해 2.1%p 작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노동을 유형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2005년과 2016년의 시점에서 <표 2>의 독립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으로 가사노동, 양육노동, 취업노동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종속변인에 대한 응답은 복수선택으로 이루어졌기에, 교차분석에서 대부분의 종속변수가 다중응답으로 처리되었으며, 표본의 사례 수가 아니라 응답된 반응 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였기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전체 응답수가 달

라질 수 있다. 학력 변인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들이 연령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학력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혼인상태는 구체적인 분석에서 몇 가지 설명을 위해 범주를 세분화하였다.

#### IV. 제주여성의 가사노동

가사노동은 빨래, 청소, 식사준비 등의 일을 말한다. 제주여성의 가사노동 실태를 묻는 문항은 가사노동 유형을 무보수 가내 가사노동과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 그리고 가사 도우미로 구분하고 복수로 선택하게 하였다. 무보수 가내 가사노동은 집안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 경우,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은 가족, 친지 등을 포함하여 남의 집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가사도우미는 가족, 친지를 포함하여 남의 집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이다. 전체적으로 무보수 가내 가사노동이 2005년에 비해 2016년이 감소하였고,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과 가사도우미는 증가하였다. <표 3>부터 <표 5>까지는 거주지별, 연령대, 단독주거여부 및 혼인상태 등 독립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유형이다. 독립변인의 무응답과 가사노동유형의 다중응답으로 인해 분석별로 사례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표 3> 거주지에 따른 가사노동 유형(다중응답)

N(%)

| 연도 | 2005      |           |           |            | 2016      |           |           |            |
|----|-----------|-----------|-----------|------------|-----------|-----------|-----------|------------|
|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가사<br>도우미 | 계<br>(100)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가사<br>도우미 | 계<br>(100) |
| 전체 | 404       | 14        | 3         | 421        | 423       | 22        | 9         | 454        |
| 1  | 225(94.5) | 10(4.2)   | 3(1.3)    | 238        | 265(93.6) | 12(4.2)   | 6(2.1)    | 283        |
| 2  | 70(95.9)  | 3(4.1)    | 0(0.0)    | 73         | 44(97.8)  | 1(2.2)    | 0(0.0)    | 45         |
| 3  | 55(100)   | 0(0.0)    | 0(0.0)    | 55         | 49(86.0)  | 5(8.8)    | 3(5.3)    | 57         |
| 4  | 54(98.2)  | 1(1.8)    | 0(0.0)    | 55         | 65(94.2)  | 4(5.8)    | 0(0.0)    | 69         |

\* 1은 제주시 동지역, 2는 제주시 읍면지역, 3은 서귀포시 동지역, 4는 서귀포시 읍면지역

2005년의 가사노동 유형을 거주지별로 확인하면, 읍면지역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2005년과 2016년에 가사도우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2005년 1.3%에서 2016년 2.1%로 서귀포시의 경우 0%에서 5.3%로 가사도우미 노동이 증가했다.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은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2005년과 2016년 모두 4.2%로 변함이 없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증가하였고 서귀포시 동지역이 0%에서 8.8%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는 농촌지역에서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였다. 2005년에는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나타났으나, 2016년에는 도시화가 진행된 서귀포시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은 가족간에 세대가 다른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므로 서귀포지역의 핵가족화 진행 정도가 컸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주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핵가족화 단계를 넘어 세대 중심의 가사노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보수 가내 가사노동은 15세 이상 제주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이다. 2005년에는 50-69세 5.4%, 15-34세와 70세이상 각각 2.3%, 35-49세 3.3% 순이었으나, 2016년에는 15-34세 7.0%, 70세이상 5.2%, 35-49세 4.6%, 50-69세 3.1%순이다.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이 전체적으로 2005년에 비해 2016년에 높아졌고, 15-34세와 70세이상 연령대에서 특히 높아졌다.

〈표 4〉 연령대에 따른 가사노동 유형(다중응답) N(%)

| 연도     | 2005      |           |           |            | 2016      |           |           |            |
|--------|-----------|-----------|-----------|------------|-----------|-----------|-----------|------------|
|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가사<br>도우미 | 계<br>(100)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가사<br>도우미 | 계<br>(100) |
| 전체     | 413       | 14        | 3         | 430        | 423       | 22        | 9         | 454        |
| 15~34세 | 168(97.1) | 4(2.3)    | 1(0.6)    | 173        | 106(92.2) | 8(7.0)    | 1(0.9)    | 115        |
| 35~49세 | 118(96.7) | 4(3.3)    | 0(0.0)    | 122        | 143(93.5) | 7(4.6)    | 3(2.0)    | 153        |
| 50~69세 | 85(92.4)  | 5(5.4)    | 2(2.2)    | 92         | 120(93.8) | 4(3.1)    | 4(3.1)    | 128        |

|      |          |        |        |    |          |        |        |    |
|------|----------|--------|--------|----|----------|--------|--------|----|
| 70세~ | 42(97.7) | 1(2.3) | 0(0.0) | 43 | 54(93.1) | 3(5.2) | 1(1.7) | 58 |
|------|----------|--------|--------|----|----------|--------|--------|----|

<표 5>는 단독주거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유형과 혼인상태에 따른 가사노동 유형을 하나의 표로 묶어놓은 것이다. 먼저, 단독주거여부를 살펴보면, 혼자사는 경우의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 투입 경향이 2005년에는 다소 적었으나 2016년에는 7.1%로 함께 사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자사는 경우에 무보수 가내 가사노동은 줄어들 수 있으나,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혼인상태에 따른 가사노동 유형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2005년에 비해 2016년에 미혼, 사별, 이혼및별거의 경우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이 증가하였다. 미혼, 사별, 이혼및별거 등의 사유로 혼자 살게 된 경우 무보수 가내 가사노동보다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단독주거 여부 및 혼인상태에 따른 가사노동 유형(다중응답) N(%)

| 연도    | 2005      |           |           |            | 2016      |           |           |            |
|-------|-----------|-----------|-----------|------------|-----------|-----------|-----------|------------|
|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가사<br>도우미 | 계<br>(100)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가사<br>도우미 | 계<br>(100) |
| 전체    | 413       | 14        | 3         | 430        | 419       | 22        | 9         | 450        |
| 단독주거  | 46(93.9)  | 1(2.0)    | 2(4.1)    | 49         | 76(90.5)  | 6(7.1)    | 2(2.4)    | 84         |
| 함께주거  | 367(96.3) | 13(3.4)   | 1(0.3)    | 381        | 343(93.7) | 16(4.4)   | 7(1.9)    | 366        |
| 전체    | 413       | 14        | 3         | 430        | 423       | 20        | 9         | 452        |
| 미혼    | 119(96.7) | 3(2.4)    | 1(0.8)    | 123        | 104(92.9) | 8(7.1)    | 0(0.0)    | 112        |
| 초혼    | 228(96.2) | 9(3.8)    | 0(0.0)    | 237        | 249(94.7) | 7(2.7)    | 7(2.7)    | 263        |
| 재혼    | 6(85.7)   | 0(0.0)    | 1(14.3)   | 7          | 11(100.0) | 0(0.0)    | 0(0.0)    | 11         |
| 사별    | 51(94.4)  | 2(3.7)    | 1(1.9)    | 54         | 45(91.8)  | 3(6.1)    | 1(2.0)    | 49         |
| 이혼/별거 | 9(100.0)  | 0(0.0)    | 0(0.0)    | 9          | 14(82.4)  | 2(11.8)   | 1(5.9)    | 17         |



## V. 제주여성의 양육노동

양육노동은 시간을 내어 공부를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여 애보는 일이나 연로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을 말한다. 제주여성의 양육노동 실태를 묻는 문항은 가사노동의 경우와 같다. 무보수 가내 양육노동은 집안식구들을 돌보면서 돈을 받지 않는 경우이고, 무보수 가외 양육노동은 가족이나 친지를 포함하여 남의 집에서 돈을 받지 않고 돌보는 경우, 그리고 양육도우미는 가족이나 친지를 포함하여 병원이나 남의 집에서 돈을 받고 돌보는 경우이다.

<표 6>에서 양육노동 유형은 대부분 무보수 가내 양육노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보수 가외 양육노동은 2005년에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1.8%가, 2016년에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각각 6.0%, 4.5%가 잡혔다. 양육도우미는 2005년에는 보이지 않았으며 2016년에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각각 2.3%, 13.6%로 나타났다. 양육도우미 경험은 2005년에 포착되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포착된다.

<표 6> 거주지에 따른 양육노동 유형(다중응답)

N(%)

| 연도   | 2005       |           |     | 2016      |           |           |     |
|--|------------|-----------|-----|-----------|-----------|-----------|-----|
|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계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양육<br>도우미 | 계   |
| 전체   | 385        | 1         | 386 | 171       | 9         | 6         | 186 |
| 1  | 214(100.0) | 0(0.0)    | 214 | 122(91.7) | 8(6.0)    | 3(2.3)    | 133 |
| 2  | 66(100.0)  | 0(0.0)    | 66  | 15(100.0) | 0(0.0)    | 0(0.0)    | 15  |
| 3  | 54(98.2)   | 1(1.8)    | 55  | 16(100.0) | 0(0.0)    | 0(0.0)    | 16  |
| 4  | 51(100.0)  | 0(0.0)    | 51  | 18(81.8)  | 1(4.5)    | 3(13.6)   | 22  |
| * 1 제주시 동지역, 2 제주시 읍면지역, 3 서귀포시 동지역, 4 서귀포시 읍면지역 |            |           |     |           |           |           |     |

<표 7>은 연령대에 따른 양육노동 유형이다. 2005년에 비해 2016년

에서 모든 연령대에 무보수 가외 양육노동이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50-59세 연령대가 8.9%, 15-34세 연령대가 7.7%, 70세 이상이 6.3%, 35-49세가 2.2%이다. 2016년의 양육도우미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난다.

〈표 7〉 연령대에 따른 양육노동 유형(다중응답)

N(%)

| 연도     | 2005       |           |            | 2016      |           |           |            |
|--------|------------|-----------|------------|-----------|-----------|-----------|------------|
|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계<br>(100)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양육<br>도우미 | 계<br>(100) |
| 전체     | 392        | 1         | 393        | 171       | 9         | 6         | 186        |
| 15~34세 | 160(100.0) | 0(0.0)    | 160        | 22(84.6)  | 2(7.7)    | 2(7.7)    | 26         |
| 35~49세 | 113(99.1)  | 1(0.9)    | 114        | 95(96.0)  | 2(2.0)    | 2(2.0)    | 99         |
| 50~69세 | 78(100.0)  | 0(0.0)    | 78         | 39(86.7)  | 4(8.9)    | 2(4.4)    | 45         |
| 70세이상  | 41(100.0)  | 0(0.0)    | 41         | 15(93.8)  | 1(6.3)    | 0(0.0)    | 16         |

<표 8>은 단독주거 여부 및 혼인상태에 따른 양육노동 유형이다. 2005년에는 혼자살고 있든지 함께 사는 식구가 있든지 무보수 가내 양육노동이 대부분이었으나, 2016년에는 혼자 사는 경우 무보수 가내 양육노동이 42.9%, 무보수 가외 양육노동이 28.6%, 그리고 양육도우미가 28.6%로 나타났으며, 함께 사는 식구가 있는 경우 무보수 가내 양육노동이 93.9%, 무보수 가외 양육노동이 3.9%, 양육도우미가 2.2%였다. 혼인상태별로는 2016년에 무보수 가외 양육노동은 재혼과 이별/별거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양육 도우미는 미혼과 재혼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단독주거 및 혼인상태에 따른 양육노동 유형(다중응답)

N(%)

| 연도   | 2005      |           |            | 2016      |           |           |            |
|------|-----------|-----------|------------|-----------|-----------|-----------|------------|
|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계<br>(100) | 무보수<br>가내 | 무보수<br>가외 | 양육<br>도우미 | 계<br>(100) |
| 전체   | 392       | 1         | 393        | 171       | 9         | 6         | 186        |
| 단독주거 | 44(100.0) | 0(0.0)    | 44         | 3(42.9)   | 2(28.6)   | 2(28.6)   | 7          |
| 함께주거 | 348(99.7) | 1(0.3)    | 349        | 168(93.9) | 7(3.9)    | 4(2.2)    | 179        |

|      |            |         |     |           |         |         |     |
|------|------------|---------|-----|-----------|---------|---------|-----|
| 전체   | 392        | 1       | 393 | 171       | 9       | 6       | 186 |
| 미혼   | 111(100.0) | 0(0.0)  | 111 | 14(87.5)  | 2(12.5) | 0(0.0)  | 16  |
| 초혼   | 219(100.0) | 0(0.0)  | 219 | 138(93.9) | 5(3.4)  | 4(2.7)  | 147 |
| 재혼   | 6(100.0)   | 0(0.0)  | 6   | 7(100.0)  | 0(0.0)  | 0(0.0)  | 7   |
| 사별   | 47(100.0)  | 0(0.0)  | 47  | 7(70.0)   | 2(20.0) | 1(10.0) | 10  |
| 이혼별거 | 9(90.0)    | 1(10.0) | 10  | 5(83.3)   | 0(0.0)  | 1(16.7) | 6   |

## VI. 제주여성의 취업노동<sup>22)</sup>

제주여성의 취업노동은 종사산업형태와 고용형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제주여성의 취업노동 현장인 종사산업형태를 먼저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2005년과 2016년 모두 사업서비스업이 각각 18.4%, 18.1%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2005년에는 농업 16.3%, 음식점업 12.4%, 도매 및 소매업 11.7% 순이고, 2016년에는 음식점업 16.4%, 농업 14.7%, 도매 및 소매업과 공공행정업 그리고 공교육업 각각 6.6% 순이다. 2005년에 비해 2016년에 건설업, 음식점업, 이미용업, 교육업에서 증가양상이 나타났고, 농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감소양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9> 표본의 종사산업형태 구성(다중응답) N(%)

| 연도         | 2005       | 2016       |
|------------|------------|------------|
| 계          | 228(100.0) | 348(100.0) |
| 농업         | 46(16.3)   | 51(14.7)   |
| 수렵채취업 및 임업 | 1(0.4)     | 4(1.1)     |
| 어업(해녀포함)   | 10(3.5)    | 7(2.0)     |

22) 이 장의 내용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주사회의 변동과 제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후속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이 정도로 포함시키는 것은 여성노동의 유형이 가사노동, 양육노동, 취업노동으로 구분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자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              |          |          |
|--------------|----------|----------|
| 광업           | 1(0.4)   | 1(0.3)   |
| 제조업          | 4(1.4)   | 6(1.7)   |
| 전기, 가스 및 수도업 | 1(0.4)   |          |
| 건설업          | 2(0.7)   | 7(2.0)   |
| 도매 및 소매업     | 33(11.7) | 23(6.6)  |
| 숙박업          | 2(0.7)   | 7(2.0)   |
| 음식점업         | 35(12.4) | 57(16.4) |
| 이미용업         | 6(2.1)   | 17(4.9)  |
| 운수업          | 2(0.7)   | 2(0.6)   |
| 통신업          | 4(1.4)   | 6(1.7)   |
| 금융 및 보험업     | 17(6.0)  | 15(4.3)  |
| 부동산, 임대업     | 2(0.7)   | 4(1.1)   |
| 사업서비스업       | 52(18.4) | 66(18.1) |
| 공공행정업        | 29(10.3) | 23(6.6)  |
| 공교육업         |          | 23(6.6)  |
| 사교육업         |          | 15(4.3)  |
| 기타           | 35(12.4) | 17(4.9)  |
| 총계           | 100.0    | 100.0    |

제주여성의 취업노동에서 고용형태의 범주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 고용주로 나누어 다중응답으로 조사하였고, <표 10>은 그 결과이다. 상용직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이고, 임시직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1년 이내에 일이 끝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이다. 일용직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혹은 주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이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자영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기가 사업을 차려서 돈버는 일을 하는 경우이고, 고용주는 사업을 차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이다.

〈표 10〉 독립변인별 고용형태(다중응답)

N(%)

| 연도           | 2005          |             |            |            |            | 2016          |              |              |              |             |            |
|--------------|---------------|-------------|------------|------------|------------|---------------|--------------|--------------|--------------|-------------|------------|
|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자영         | 계<br>(100)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자영           | 고용주         | 계<br>(100) |
| 전체           | 241<br>(96.0) | 4<br>(1.6)  | 4<br>(1.6) | 2<br>(0.8) | 251        | 169<br>(49.7) | 45<br>(13.2) | 42<br>(12.4) | 66<br>(19.4) | 18<br>(5.2) | 340        |
| 거주지          |               |             |            |            |            |               |              |              |              |             |            |
| 제주시<br>동지역   | 115<br>(97.5) | 1<br>(0.8)  | 1<br>(0.8) | 1<br>(0.8) | 118        | 98<br>(47.6)  | 27<br>(13.1) | 29<br>(14.1) | 42<br>(20.4) | 10<br>(4.9) | 206        |
| 제주시<br>읍면지역  | 52<br>(92.9)  | 2<br>(3.6)  | 1<br>(1.8) | 1<br>(1.8) | 56         | 21<br>(53.8)  | 4<br>(10.3)  | 2<br>(5.1)   | 8<br>(20.5)  | 4<br>(10.3) | 39         |
| 서귀포시<br>동지역  | 35<br>(94.6)  | 1<br>(2.7)  | 1<br>(2.7) | 0<br>(0.0) | 37         | 18<br>(41.9)  | 7<br>(16.3)  | 4<br>(9.3)   | 12<br>(27.9) | 2<br>(4.7)  | 43         |
| 서귀포시<br>읍면지역 | 39<br>(97.5)  | 0<br>(0.0)  | 1<br>(2.5) | 0<br>(0.0) | 40         | 32<br>(61.5)  | 7<br>(13.5)  | 7<br>(13.5)  | 4<br>(7.7)   | 2<br>(3.8)  | 52         |
| 연령대          |               |             |            |            |            |               |              |              |              |             |            |
| 15-34세       | 94<br>(98.9)  | 0<br>(0.0)  | 1<br>(1.1) | 0<br>(0.0) | 95         | 41<br>(45.6)  | 26<br>(28.9) | 11<br>(12.2) | 11<br>(12.2) | 1<br>(1.1)  | 90         |
| 35-49세       | 96<br>(96.0)  | 1<br>(1.0)  | 1<br>(1.0) | 2<br>(2.0) | 100        | 80<br>(60.6)  | 14<br>(10.6) | 6<br>(4.5)   | 22<br>(16.7) | 10<br>(7.6) | 132        |
| 50-69세       | 49<br>(92.5)  | 2<br>(3.8)  | 2<br>(3.8) | 0<br>(0.0) | 53         | 42<br>(46.7)  | 4<br>(4.4)   | 14<br>(15.6) | 24<br>(26.7) | 6<br>(6.7)  | 90         |
| 70세          | 7<br>(87.5)   | 1<br>(12.5) | 0<br>(0.0) | 0<br>(0.0) | 8          | 6<br>(21.4)   | 1<br>(3.6)   | 11<br>(39.3) | 9<br>(32.1)  | 1<br>(3.6)  | 28         |
| 단독 주거        |               |             |            |            |            |               |              |              |              |             |            |
| 예            | 20<br>(95.2)  | 1<br>(4.8)  | 0<br>(0.0) | 0<br>(0.0) | 21         | 31<br>(44.9)  | 10<br>(14.5) | 15<br>(21.7) | 12<br>(17.4) | 1<br>(1.4)  | 69         |
| 아니오          | 226<br>(96.2) | 3<br>(1.3)  | 4<br>(1.7) | 2<br>(0.9) | 235        | 138<br>(52.1) | 32<br>(12.1) | 26<br>(9.8)  | 54<br>(20.4) | 15<br>(5.7) | 265        |
| 혼인상태         |               |             |            |            |            |               |              |              |              |             |            |
| 미혼           | 63<br>(98.4)  | 0<br>(0.0)  | 1<br>(1.6) | 0<br>(0.0) | 64         | 45<br>(47.4)  | 29<br>(30.5) | 10<br>(10.5) | 7<br>(7.4)   | 4<br>(4.2)  | 95         |
| 초혼           | 156<br>(95.7) | 2<br>(1.2)  | 3<br>(1.8) | 2<br>(1.2) | 163        | 109<br>(55.9) | 12<br>(6.2)  | 18<br>(9.2)  | 45<br>(23.1) | 11<br>(5.6) | 195        |
| 재혼           | 2<br>(100.0)  | 0<br>(0.0)  | 0<br>(0.0) | 0<br>(0.0) | 2          | 4<br>(80.0)   | 0<br>(0.0)   | 1<br>(20.0)  | 0<br>(0.0)   | 0<br>(0.0)  | 5          |

|          |              |             |            |            |    |             |              |              |              |            |    |
|----------|--------------|-------------|------------|------------|----|-------------|--------------|--------------|--------------|------------|----|
| 사별       | 16<br>(94.1) | 1<br>(5.9)  | 0<br>(0.0) | 0<br>(0.0) | 17 | 6<br>(20.0) | 0<br>(0.0)   | 12<br>(40.0) | 10<br>(33.3) | 2<br>(6.7) | 30 |
| 이혼<br>별거 | 9<br>(90.0)  | 1<br>(10.0) | 0<br>(0.0) | 0<br>(0.0) | 10 | 5<br>(41.7) | 1<br>(8.3)   | 1<br>(8.3)   | 4<br>(33.3)  | 1<br>(8.3) | 12 |
| 비혼       |              |             |            |            |    | 0<br>(0.0)  | 1<br>(100.0) | 0<br>(0.0)   | 0<br>(0.0)   | 0<br>(0.0) | 1  |

거주지에 따른 고용형태를 보면, 2005년에 없던 고용주가 2016년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별 고용주의 비율은 제주시 읍면지역이 10.3%로 가장 높고, 제주시 동지역 4.9%, 서귀포시 동지역 4.7%, 서귀포시 읍면지역 3.8%이다. 전체적으로 2016년에 상용직이 줄어들고 임시직 일용직 자영이 늘어났다. 제주시 동지역은 자영 20.4%, 일용직 14.1%, 임시직 13.1% 순이고, 제주시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은 각각 자영 20.5%와 27.9%, 임시직 10.3%와 16.3%, 일용직 5.1%와 9.3% 순이다.

연령대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2005년에 비해 2016년의 상용직 비율이 감소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35~49세 연령대의 상용직 비율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에 임시직의 비율은 15~35세 연령대가 28.9%로 가장 높고, 자영은 70세 이상과 50~69세 연령대에서 32.1%와 26.7%로 높았다.

단독주거 및 혼인상태에 따른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직 비율은 2005년에 혼자사는 경우 95.2%, 함께사는 경우 96.2%로 큰 차이가 없으나, 2016년에는 혼자사는 경우의 상용직 비율이 44.9%로 함께사는 경우의 상용직 비율 52.1%보다 작다. 자영 비율 역시 혼자사는 경우엔 17.4%이나 함께사는 경우는 20.4%이다. 2016년에 주거생활을 혼자 하는 임시직 14.5%, 일용직 21.7%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른 고용형태는 미혼의 임시직 비율 30.5%와 초혼의 자영 23.1%가 눈에 띈다.

<표 10>에서, 상용직이 2005년 96.0%이고, 2016년 49.7%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하다. 순위를 정하지 않은 다중응답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계청 조사와 달리 농어업의 경우도 상용직으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 노동에 대한 제주여성의 자의식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005년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며 ‘농’일을 하는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면 언제까지든 일할 수 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6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농’일꾼 중에 원주민/이주민 비율이 크게 달라지면서 나타난 변화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후속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용형태는 다중응답이기에,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될 필요가 있다.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통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원자료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2008년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설문조사에서는 고용형태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 고용주로 나누어서 다중응답을 받았지만, 통계청 자료에서는 고용형태를 임금근로 및 비임금근로로 나누고 임금근로에서 상용직, 임시/일용직을 비임금근로에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선택하게 되어있다.

〈표 11〉 제주 여성의 종사상의 지위 추이(2008~2016)<sup>23)</sup>

|      | 계     | 상용직  | 임시, 일용직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
|------|-------|------|---------|-----|------|---------|
| 2008 | 100.0 | 25.3 | 35.7    | 3.5 | 16.6 | 18.9    |
| 2009 | 100.0 | 28.2 | 35.8    | 4.2 | 15.1 | 16.7    |
| 2010 | 100.0 | 26.2 | 38.5    | 3.8 | 14.1 | 17.5    |
| 2011 | 100.0 | 31.0 | 32.9    | 4.0 | 16.0 | 16.1    |
| 2012 | 100.0 | 30.0 | 35.5    | 6.6 | 13.9 | 14.0    |
| 2013 | 100.0 | 30.5 | 38.0    | 5.1 | 14.0 | 12.4    |
| 2014 | 100.0 | 31.0 | 37.1    | 4.6 | 14.0 | 13.2    |
| 2015 | 100.0 | 31.9 | 35.6    | 4.0 | 15.7 | 12.8    |
| 2016 | 100.0 | 35.8 | 35.1    | 4.3 | 12.3 | 12.5    |

23) 고지영, 『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2017: 78-79쪽, 373쪽.

<표 11>에 따르면, 상용직이 2011년과 2016년에서 각각 전년도에 비해 4.8%p, 3.9%p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도의 증가는 주로 임시, 일용직의 감소에서, 2016년도의 증가는 주로 자영자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자료만으로는 상용직이 임시, 일용직으로 분해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도별 추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표 10>에서는 상용직이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파편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제주여성의 취업노동이 2010년을 전후로 불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표 10>과 <표 11>의 자료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느 한 편의 자료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수입원을 따져서 단수선택하도록 되어있는 통계청 자료보다 모든 소득수입출처에 대하여 다중응답하도록 설계된 설문조사 자료가 보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논쟁을 통해 현실적합한 조사설계를 위해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 Ⅶ. 결 론

제주지역 여성노동의 유형을 가사노동, 양육노동, 취업노동으로 구분하여 2005년과 2016년의 상태를 비교하였다.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은 무보수 가내와 무보수 가외 그리고 도우미로, 취업노동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 고용주로 범주화하였다. 복수로 응답한 노동유형을 거주지, 연령대, 단독주거 및 혼인상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가사노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의 외부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추정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오화영의 사회적 가사노동의 의미와는 다르다. 오화영의 사회적 가사노동은 무보수 가내



가사노동의 공간적 확장을 뜻하지만 가사노동의 외부화는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 비율의 증가를 말한다.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이 전체적으로 2005년에 비해 2016년에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는데, 15-34세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특히 높았다. 미혼, 사별, 이혼 및 별거 등의 사유로 혼자 살게 된 경우 무보수 가내 가사노동보다 무보수 가외 가사노동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다음, 양육노동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양육노동의 외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에 비해 2016년에 모든 연령대에서 무보수 가외 양육노동이 증가했다. 양육도우미는 2005년에 없었으나, 2016년에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경우와 함께 사는 식구가 있는 경우 모두 2005년에 비해 2016년에 무보수 가외 양육노동이 증가하였으나, 혼자 사는 경우의 양육노동 외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노동의 경우, 2005년에 없던 고용주가 2016년에 나타났다음이 확인되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고용주의 비율은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응답에서는 2005년의 상용직이 2016년에 임시직, 일용직, 자영으로 분해되었고, 통계청 자료에서는 오히려 상용직이 증가하였다.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취업노동의 불안정화 현상의 징후 정도로 언급할 수는 있겠다.

결론적으로, 2005년과 2016년 조사에 나타난 제주여성의 노동상태 변화는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의 외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을 여성의 당연한 무임금노동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경제활동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무보수 가외노동 형태로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이 확대되고 있음은 여성에게 이중 삼중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정책이 가사노동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독주거 여성이 무보수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을 담당하기 위해 출장 나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제주여성의 노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주 여성의 노동유형을 가사노동, 양육노동, 취업노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분석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함께 탐구하지 못한 점과, 노동유형을 살피는 데에 그치고 노동시간까지 다루지 못한 점, 그리고 취업노동과 함께 살펴야 할 실업 문제를 놓쳤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특히, 종사상 지위에서의 단수응답과 복수응답이라는 조사설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논쟁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허점투성이임에도 이 논문이 제주지역의 여성노동 연구에 거친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강경숙·김선필, 『제주지역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방안-30~40대 기혼 남성의 가사·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7.

강경숙·안미정, 『제주 여성의 삶: 일·가족·공동체, 재해석과 재조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

고지영, 『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7.

권희정·염미경,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 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4.

김승권·김태환·임성은·고은주,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여성부, 『여성백서』 2002.

이미정·김혜영·선보영,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2. 참고논문**

강성의, 「제주도 개발과정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의 변화」, 『제주도연구』 제12권, 1995.

김경호·소순창,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양육지원요구와 영국 사례를 토대로 한 정책적 개선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집, 2011.

김미숙,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 1960-2000」,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2006.

김오남,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한국노년학연구』 제16집, 2007.

김유미·김명희·정여주,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접근」, 『사회복지연구』 제38집, 2008.

김은희, 「신중산층의 일·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임돈희 외, 『성, 가족,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접근』, 집문당, 1997.

- 김혜경 외,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한국 가족의 역할변화」, 『여성과사회』 제3집, 1992.
- 김혜연,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에서 본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4집(인문사회과학편), 제주대학교, 1992.
- 김혜연, 「여성의 경제활동」, 『제주리뷰』2호, 1996.
- 김혜선,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8집, 2004.
- 김혜선,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 『노인복지연구』 제43집, 2009.
- 문옥표, 「도시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 임돈희 외, 『성, 가족,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접근』, 집문당, 1997.
- 박충선, 「조손가정의 형성원인과 양육경험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5집 2호, 2010.
- 신광영·김현희, 「여성과 노동운동—7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66.
- 신경아, 「희생의 화신에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여성과사회』 제9집, 1998.
- 신경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 연구』 제16권 1호, 2016.
- 오화영,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주부로 살기—후기 자본주의 사회와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2호, 2005.
- 이선경, 『미혼양육모의 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장상천, 『한국의 양육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허수연,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집 3호, 2008.
- 허정옥, 「제주도 여성의 경제활동 및 취업구조」, 『제주도연구』 제22권, 2002.

홍승아·이영미,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아동기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8권 1호, 2009.

ABSTRACT

## Types and Change of Jeju Women's Labor

Kim, Jun-pyo\*

'Jeju women' has been a symbol of Jeju for many centuries. Usually Jeju Island has been called Sam-da-do which could be translated as the three lots island. It means that there are lots of stones, lots of winds, and lots of women in Jeju Island.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Jeju women due to Jeju characteristic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Jeju women's labor situation. Women's labors are divided into house work, care work, and work-in-job in the capitalist labor mark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actual conditions of house work, care work, and work-in-job by Jeju women in the year of 2005 and 2016. As a result, house work and care work of Jeju women occurred not only inside home but also outside especially in the case of women aged from 50 to 69 years old. Employment status of employed worker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emporary work and daily work on 2016 compared to 2005 in the case of the plural choice on the survey. It is also not constant and has a degree of curvature in the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ey-words: Jeju women, women's labor, house work, care work, work-in-job in the capitalist society

---

\* Lecture of Sociology at Jeju National University.

논문투고일: 2018. 12. 31.

심사완료일: 2019. 01. 25.

게재확정일: 2019. 02. 01.